



세관장 자캐오

예리코는 지중해 연안 도시 요빠와 예루살렘과 요르단 동부지역을 잇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면서 일종의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왕래는 물론 물건 수송도 잦은 곳이었다. 그곳에 세관이 있었다.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주로 인두세와 토지세를 징수했고, 통행세 징수는 지역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다. 이런 관례에 따라 자캐오는 예리코 지역의 세금징수권을 매입하고 자기 밑에 세리들을 고용해서 부당한 수수료와 뇌물을 챙겼을 것이다. 물론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당국에 바쳤고 자신도 착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세리들에게는 늘 부정축재자, 민족의 반역자, 부정한 자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말하자면 세리들은 직업상 공적 죄인으로 치부되어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늘 배는 불렀어도 가슴은 시렸다.'

그렇게 살던 자캐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세리 마태오를 자기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마태 9,9 참조) 자캐오는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늘 굴레처럼 자신을 묶어매던 오명들을 지워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러나 키가 작았던 자캐오는 군중에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체면도 불사하고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의 말씀,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모든 이가 무시하고 따돌렸던 자캐오를 예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자캐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네 곱절로 갚겠다는 약속으로 구원의 기쁨을 드러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 남자의 연 수입 중 1/5을 구제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고, 절도의 경우에는 갑절로 배상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속죄행위였다.(탈출 22,3,6)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으로 자캐오의 구원을 선언하신다. 그렇다. 온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김순곤 비오 신부 | 사천본당 주임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제 1 독 서 지혜 11,22-12,2

화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 서 2테살 1,11-2,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 음 루카 19,1-10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23기 아버지학교

황태근 율리아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나,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여행을 한 후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기분들, 신부님, 봉사자님들 그리고 기도해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옥태희 중2 여자아이, 초4, 초2 남자 둘의 아버지로서, 점점 이들에 대해 내가 과연 어떠한 아버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찰나에 주위 지인의 권유로 아버지학교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저는 그저 권위적인 아버지, 아이들의 입장보다는 어른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은 장점이 훨씬 많은 아이들임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많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안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내내 저희를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



해주신 강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봉사자

남기종 멜라니오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나와 멀어져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괜찮은 아버지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은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아버지학교 파이팅!

기동철 시몬 23기 아버지학교 수료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과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2008년 1기 아버지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봉사자로서 10년이 넘어갑니다. 교육 수료 후의 첫 번째 목표가 가족과의 스킨십과 대화... 딸과의 첫 포옹, 엉덩이를 주욱 내밀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포옹. 하루 이틀... 지금은 어디서든 안겨 옵니다. 매일 출근길에 아내와의 포옹 등 많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본당 식구들이나 회사 지인들도 우리집의 이런 닭살스러움에 부러워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봉사자로서 건강한 성가정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 생각은 틀렸다

박성임 글라라 • 시인

대체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다. 나 역시 막연하게 부자를 선호하고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살아가는 데 더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는 그릇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빈곤, 기아, 전쟁, 부패, 심지어 건강문제, 환경문제까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라고 말할 하지만 실제로는 불감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그냥 그냥 슬그머니 모른 채 살고 있다. 그래서 다들 행복한 것일까? 행복한 척하고 사는 것일까? 나만 불행한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행복보다는 자국,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한 도구들의 부정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어쩌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대가)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열경쟁 문화에서 사는 이상 영원한 승자는 없다 라고... 많은 사람이 정상을 향해 존재하고 위로 오를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더 위로 더 많은 것을 위한 돌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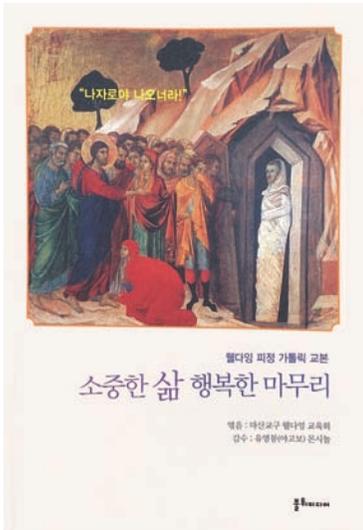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내가 더 가진 것만큼 남의 행복을 빼앗고 빈곤한 이웃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하셨다. 나의 물질적인 소비를 줄이고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다 보면 물질적인 절제도 습관화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생긴다.

새실 앤드류스는 행복을 부르는 4대 요소는 관계, 소명, 유희, 자발적인 통제라고 주장한다. 먼저 사회적 유대가 탄탄한 사람이 행복하다. 관계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덜 외로워지는 것. 열정을 가지고 유의미한 시간을 사용하며 무엇보다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찾는 일. 즐거운 일을 찾아 하기. 예술 활동이나 사회운동이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게 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것. 남을 의식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행복을 가장한 가짜다. 보상 없이 추구하는 가치로운 일은 자존감과 기쁨을 공유하는 행복의 길이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일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과시)보다는 보여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즐거우면 남도 즐겁고 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진다. 당장이라도 틀린 행복의 공식을 지우고 참행복의 법칙을 익혀 가는 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껴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지금도 참행복의 정답을 찾는 중이다.

연령연합회

우리는 왜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소중한 삶 행복한 마무리”

웰다잉 피정 교본으로서 교육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교육 내용은,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네 가지 종말(죽음, 심판, 지옥, 천국), 죽음의 과정, 죽음과 부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하면서 회피하다 주변의 죽음을 보면 나오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 어쩔 줄 몰라하며 가족에게 이별의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창원파티마 호스피스병동, 본당 연령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아 왔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 품에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 코앞인데도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더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하필 내가 왜 몹쓸 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가 하며 죽음을 거부하게 된다.

“하느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까? 교무금을 안 냈습니까? 몹쓸 짓을 했습니까?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이들, 또 어떤 사람은 형제간에 좋지 못한 일로 마지막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연, 재산 문제로 가족간에 다툼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경험을 많이 하였다.

‘맞이하는 죽음’이 아닌 ‘당하는 죽음’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며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웰다잉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 교육

“주님 당신의 집으로 편안히”



선종을 위한 묵상과 음악을 담은 음반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맞이하게 되지만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포, 불안, 악을 통해 묵상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맞이한 사람들의 예화를 통해 하늘나라를 복돋는다.

나레이터: 고영민(안드레아), 손현희(데레사)
제작: 임춘성 안토니오 | 승인: 천주교 마

가격: 만 원
문의: 010·5883·4413



은 월남동성당에서 2015년 3월 17일 시작하였는데, 12주 코스에 87명이 참석하였고, 이후 월남, 중앙, 양덕, 북신동 성당 등에서 10회 교육에 1064명이 참여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은 4주로 단축하여 실시한다. 교육 내용이 담긴 교본을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선종을 위한 묵상과 음악을 담은 음반을 제작하였다.

“듣게 하소서”

을 출시하였다.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이 과정에 고통을 가지고 편안히 죽음을 위한 공포를 가진다. 불안, 두려움을 말씀과 음악으로 돕는다. 좋은 죽음을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감수: 유영봉(아고보)문시놀
산교구



입관교육

기억할 선종 사제

11월 9일(토) :
故 최동오(아타나시오) 신부 10주기



교구장 동정

건진성사

일사: 11월 3일(주일)
장소: 칠원성당

반석축제

일사: 11월 10일(주일)
장소: 고현성당

교구/분당

복학생 피정

일사: 11월 5일(화)~6일(수) 1박2일
장소: 예구공소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성모신심 묵상회 6주간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일자: 11월 5일(화)~12월 10일(화)
강사

- 1주: 11월 5일(화) 황병석(파스칼)신부
- 2주: 11월 12일(화) 최봉원(야고보)신부
- 3주: 11월 19일(화) 정운호(베드로)신부
- 4주: 11월 26일(화) 신동규(다미안마리아)신부
- 5주: 12월 3일(화) 강영구(루치오)신부
- 6주: 12월 10일(화) 박지영(실비아)수녀

미사 주례: 주용민(리노)신부

13기 어머니학교

일사: 11월 9일(토)~10일(주일)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제30회 반석 청소년 축제 - 거제지구

일사: 11월 10일(주일)
장소: 거제지구 일대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2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사: 11월 10일(주일)
장소: 거제지구 일대(반석제 참석)
문의: 성소국 055·249·7061

교구 합창단 초청 - 찾아가는 음악회

일사: 11월 16일(토) 19:00
장소: 의령성당
문의: 055·573·4702

교구 청년연합 성지순례

일사: 11월 23일(토) 08:00~18:30
장소: 대구대교구 성모당, 관덕정순교기념관
신청마감: 11월 17일(주일) 1인당 2만 원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부연수

일사: 12월 7일(토) 13:30~8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교구·지구 연합회장단, 분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가톨릭학생회 회장단
참가비: 1인당 5만 원
준비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신청마감: 11월 24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 모든 일정은 교구장 주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위원회/기관/단체

M.E 월례회

일사: 11월 4일(월)
장소: 교구청

신양대학 심화과정

일사: 11월 9일(토)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교정사목후원회 성지순례

일사: 11월 9일(토)
장소: 연풍성지
문의: 사회복지국 055·249·7041~2

수도회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1월 11일~13일, 11월 24일~27일(추자도), 12월 2일~4일, 12월 6일~8일, 12월 14일~17일(추자도), 1월 4일~6일(한라산눈꽃산행)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1일(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사: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젊음이 2박3일 마음피정 '하느님을 만나는 길'

일사: 11월 15일(금) 20:00~17일(주일) 13: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자매 (15명 선착순)
참가비: 6만 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010·8811·6187

기 타

서울 삼성산성지 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사: 11월 8일(금)18:00~10일(주일)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최황진, 양창우 신부 외 전국유명강사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의: 010·7375·4600

<p>폼겨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p> <table border="1"> <tr> <td>2월 1일</td> <td>이스라엘 요르단</td> <td>12일</td> <td>439만원</td> </tr> <tr> <td>2월 10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95만원</td> </tr> <tr> <td>2월 12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일</td> <td>395만원</td> </tr> <tr> <td>2월 13일</td> <td>이스라엘 이탈리아</td> <td>12일</td> <td>439만원</td> </tr> </table> <p>분도여행사 02.852.8525</p>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만원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p> <p>진영삼성안과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p>	<p>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p> <p>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p> <p>가톨릭 트러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만원																

가르멜수도회 후원회 미사

일시: 11월 9일(토) 10:30
장소: 마산 가르멜 수도원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11월 10일(주일) 14:00~17:00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대구가톨릭대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마감: 11월 8일(금) / 월, 목 야간 수업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50% 장학금 지급(모든 학생)
문의: 053·660·5252~4, 010·6563·04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

일시: 11월 12일~14일, 11월 21일~24일,
12월 1일~4일, 12월 6일~8일,
12월 30일~2020년 1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성탄 특선 이스라엘 성지순례(평화순례여행사)

일시: 12월 21일(토)~27일(금) 6박7일
순례지: 나자렛, 갈릴래아, 예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문의: 02·723·3371~4, 010·5385·0565

26차 해외선교사교육(2020년)

일시: 2020년 1월 13일(월)~2월 7일(금)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장소: 서울 돈암동 성골롬반외방선교회선교센터
문의: 02·953·0613



송구영신 피정

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16:00~2020년 1월 1일(수)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신년 대축일 미사
입금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055·221·1891~2, 선착순 마감

• 제8회 교구 성경잔치 분야별 입상자 •

은총성경쓰기 오경-본당부문

최우수상: 삼계|우수상: 오정 사파|장려상: 중동, 상남동, 망경동

성경완필-본당부문

최우수상: 사림동|우수상: 삼계|장려상: 망경동, 팔용동

성경공부 6년 수료

박경희 스틸라(철암동), 유재숙 리더아(신안동), 김양희 세실리 아(월남동), 김신형 벨라뎃다(대전), 김명하 안드레아(대전), 류명숙 미키엘라(양덕동), 이춘원 스테파노(양덕동), 전칠주 아델리(양덕동), 박영희 안토니아(양덕동), 이경순 요세피나(양덕동)

성경암송부문-본당

최우수상: 팔용동|우수상: 사천교사회, 사천레지오|장려상: 삼계(2부리아), 반송(한산공동체), 반송(트리공동체)

성경암송부문-청소년

최우수상: 가좌동|우수상: 덕산동|장려상: 사파동, 삼계, 명서동

성경골든벨

최우수상: 고화숙 프란치스카(가좌동)|우수상: 최명희 마리아(중동), 강인숙 프란치스카(장평)|장려상: 한순자 아네스(가좌동), 배길선 비비안나(월명동)

작품

최우수상: 전해련 아폴로니아(가좌동)|우수상: (사천) - 노유슬 안젤라, 최은지 요안나, 최리사 엘리사벳, 최정안 글라리|장려상: 임영미 모니카(삼계) 공옥화 벨라뎃다(사파) 김응봉 오희(팔용동)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무국 055·242·6776



성모신심 피정(성모상형렬)

일시: 11월 21일(목) 09:30~16:00
(파견미사 15:00~16:00)
장소: 월영성당
강사: 이상재(가톨릭)신부 (대구평화방송사장, 강의방송 출연)
대상: 전신자(회비 없음)
문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마산교구 010·4848·7106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1월 4일(월) 19:00	월남동성당	성령 안에서 성사를 통한 관계회복	이동진 신부(안셀모)	이동진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11월 4일(월) 19:00	반송 성당	하느님 뜻을 실행하는 삶	정중규 신부(클라로)	정중규 신부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리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 10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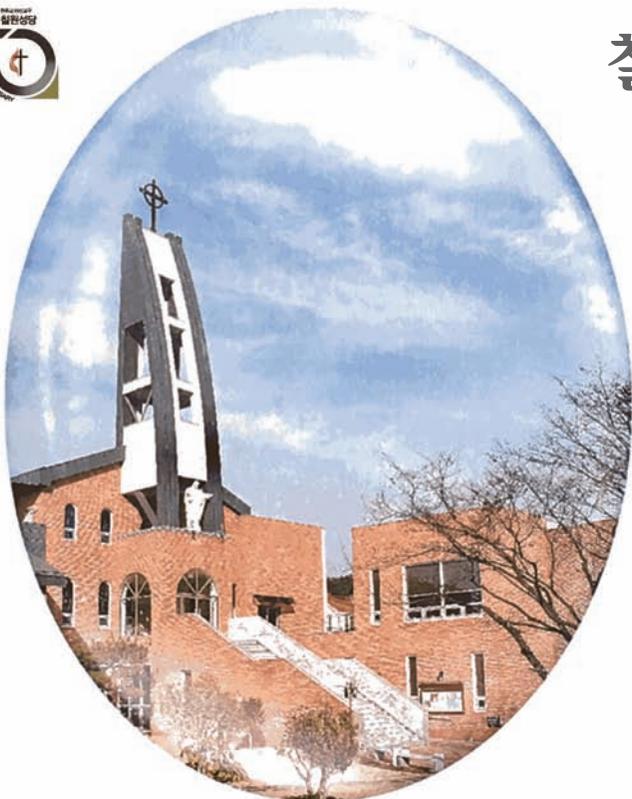
 <p>라파엘여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12/3 (289만원) 1/22 구정(29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9, 3/4 ◆ 선택선 아태리 일주 9일 (299만원) 1/21 ◆ 성모발현지 3일 11/26(379만원), 2/3 (389만원)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p>SM 수맥 흙(흙)침대</p> <p>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p> <p>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p> <hr/> <p>우리농 직매장 2호</p> <p>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p> <p>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p>	<p>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p> <p>태도건 다니엘 010.2232.1456</p> <p>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p> <hr/> <p>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p> <p>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p>	<p>가톨릭신문투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원 ▶ 12/8 다낭 마카오 6일 145만원 ▶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원 <p>02.2281.9070 www.cttour.org</p>
---	---	---	---

돌아서지 말자!

“천고마비,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은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금방 들은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금방 아침 차렸는데 돌아서니 점심때네.” “친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돌아서니 뒤통수를 치네.” 참 희한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굳은 결심을 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부릅니다. “백남해, 백 신부!” 앗! 하마터면 돌아볼 뻔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누구십니까?” 소리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신데 저를 부르십니까!” 외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웅하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차! 또 속았습니다. 돌아서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물 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돌아서니 세월이 훌쩍 가버려 검은 머리 사이로 백발이 성성해진 것입니다. 저를 불러 세운 것은 세월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서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배신도, 잊힘도, 배고픔도, 늙어감도 없겠지만 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진정한 믿음에 대한 깨달음도, 고통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고요함도, 늙어가며 얻는 지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세상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월과 맞서기 위하여 미장원에서 염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쉽게 10년 세월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돌아서면서 살아가십시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칠원성당 설정40주년 기념

저희 칠원성당이 설정 4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일시: 2019년 11월 3일(주일) 10시 30분
장소: 1부 기념미사, 견진성사(교구장 배기현 주교 집전)
2부 축하식(11시 30분)
3부 나눔잔치(1층 강당)

사목회장: 안석중(요셉), 본당신부: 배진구(베드로)